<h1>나 혼자만 레벨업-67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l6cb7b7e8b9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67화</p>  
<p>"형님! 레이드도 끝났는데 회식 어떠십니까?"</p>  
<p>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어 왔다.</p>  
<p>"회식? 아무도 없는데?"</p>  
<p>공격대는 마지막 레이드가 끝나고 바로 해산시켰다. 한송이도 따로 갈 데가 있다고 해서 차에는 진우와 유진호 두 사람뿐이었다.</p>  
<p>유진호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.</p>  
<p>"형님께 계속 도움만 받았으니 오늘은 제가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요."</p>  
<p>밥 한 끼 먹자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?</p>  
<p>진우는 피식 웃었다.</p>  
<p>그냥 같이 먹자는 것도 아니고 한 턱내고 싶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.</p>  
<p>"좋지."</p>  
<p>진우가 흔쾌히 수락하자 유진호의 얼굴이 알아보기 쉽게 밝아졌다.</p>  
<p>"형님! 제가 잘 아는 호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리로 모실까요? 거기 스테이크가 아주 끝내줍니다."</p>  
<p>"그런 거 말고."</p>  
<p>꼭 참석해야 할 자리에서 그런 메뉴가 나왔다면 모를까, 유진호와는 편한 장소로 가서 마음 편하게 먹고 싶었다.</p>  
<p>마침 적당한 곳이 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톡.</p>  
<p>진우의 손가락 끝이 차 유리를 찍었다.</p>  
<p>"저긴 어때?"</p>  
<p>"아, 한우 드시고 싶으셨습니까?"</p>  
<p>"아니, 그 옆에."</p>  
<p>유진호의 눈이 가늘어졌다.</p>  
<p>옆에 있는 식당이라면... 한 곳밖에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[삼겹살 꽃피는 날에- 대패 삼겹 전문]</p>  
<p>"혹시 대패 삼겹살집 말씀이십니까, 형님?"</p>  
<p>"삼겹살 싫어하냐?"</p>  
<p>그러자 유진호가 싱긋 웃었다.</p>  
<p>"아닙니다. 저도 좋아합니다, 형님."</p>  
<p>근처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더니 바쁘게 움직이는 알바생들과 손님으로 가득 찬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지금은 오후 7시.</p>  
<p>음식점이 붐빌 시간이긴 했다.</p>  
<p>"어서 오세요."</p>  
<p>알바생이 미소를 짓고 다가왔다.</p>  
<p>"몇 분이세요?"</p>  
<p>"두 사람요."</p>  
<p>"이리로 오세요."</p>  
<p>유진호의 대답에 알바생이 두 사람을 구석진 자리로 안내하려 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"잠깐만요."</p>  
<p>가게 내를 둘러보던 유진호가 창가 쪽의 빈자리를 가리켰다.</p>  
<p>"저기는 안 될까요?"</p>  
<p>"아, 저기는 지금 예약이 있어서..."</p>  
<p>단체 예약 손님이 있는지 식탁 여러 개를 붙여 놓은 자리가 전부 비어 있었다.</p>  
<p>유진호는 널찍한 빈자리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결국 두 사람이 앉게 된 곳은 가게의 가장 안쪽, 후미진 자리였다.</p>  
<p>유진호가 고개를 푹 숙였다.</p>  
<p>"죄송합니다, 형님."</p>  
<p>"네가 죄송할 일이 뭐 있냐. 여기 오자고 한 것도 난데."</p>  
<p>"그래도 제가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셨어야 하는데."</p>  
<p>진우가 씩 웃으며 유진호의 어깨를 툭 쳤다.</p>  
<p>"그런 걱정 말고 먹기나 잘해, 인마."</p>  
<p>오히려 진우는 이런 싸구려 고기가 도련님 입맛에 맞을까가 걱정이었다.</p>  
<p>'그리고 말을 아꼈지만...'</p>  
<p>진우가 주변을 둘러보았다.</p>  
<p>사람들, 그리고 또 사람들.</p>  
<p>항상 조용한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지 이런 복작복작한 분위기도 싫지 않았다.</p>  
<p>"삼겹살 3인분, 소주 2병 나왔습니다."</p>  
<p>곧 주문한 삼겹살과 소주가 나왔다.</p>  
<p>치이이익-</p>  
<p>불판 위에 올린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 갔다.</p>  
<p>한 점, 두 점, 고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.</p>  
<p>다행히 유진호 입맛에도 맞는 모양이었다.</p>  
<p>"저 친구들하고 삼겹살집 자주 갑니다, 형님."</p>  
<p>"그래? 대학 친구들?"</p>  
<p>"네, 형님. 비싼 사립초중고 나온 친구들보다 평범한 대학 친구들이 저랑 더 잘 맞더라고요."</p>  
<p>진우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유진호라면 그럴 만도 했다.</p>  
<p>"한 잔 받으세요, 형님."</p>  
<p>"너도."</p>  
<p>꼴꼴꼴.</p>  
<p>서로 잔을 채우고, 살짝 건배 후 원샷.</p>  
<p>"캬하."</p>  
<p>그러나 소주를 음미하는 유진호와 달리 진우는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.</p>  
<p>"엇? 형님, 입맛에 안 맞으십니까?"</p>  
<p>"아니. 그런 건 아닌데..."</p>  
<p>진우는 빈 술잔을 허탈하게 내려다 보았다.</p>  
<p>그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서 그만 깜박하고 있던 것이 있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해로운 성분이 감지되었습니다.]</p>  
<p>['버프: 해독'의 효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.]</p>  
<p>[3, 2, 1... 해독이 완료되었습니다.]</p>  
<p>'이제 취할 수 없게 됐었지, 참.'</p>  
<p>몇 잔을 마셔도 마찬가지.</p>  
<p>띠링, 띠링, 띠링.</p>  
<p>모든 해로운 효과를 차단해 버리는 '무병장수' 버프가 있는 한 소주는 그냥 맛이 좀 씁쓸한 맹물이나 다름없었다.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욕지기를 내뱉었다.</p>  
<p>'젠장.'</p>  
<p>쓸데없이 쓰기만 한 물을 마시느니 차라리 음료를 마시고 말지.</p>  
<p>"저기요."</p>  
<p>알바가 쪼르르 달려왔다.</p>  
<p>"삼겹살 2인분 더 추가에 사이다 1병 주세요."</p>  
<p>"네."</p>  
<p>알바가 가고 나서 유진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형님, 왜 술을 더 시키지 않으시고요?"</p>  
<p>"내가 술을 잘 못 마셔."</p>  
<p>진우가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대답했지만, 유진호는 역시 평소답게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.</p>  
<p>그러고는 취기가 올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헤벌쭉 웃었다.</p>  
<p>'형님께도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가...'</p>  
<p>유진호가 색다른 시선을 보내왔지만, 진우는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 버렸다.</p>  
<p>'저 녀석이 이상했던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.'</p>  
<p>유진호에게 궁금했던 건 따로 있었다.</p>  
<p>"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야?"</p>  
<p>진지한 질문이 나오자 유진호는 면접관을 앞둔 취준생처럼 정자세를 했다.</p>  
<p>"협회에서 간단한 필기시험을 치르기만 하면 길드 마스터 면허가 바로 나옵니다. 형님. 그걸 가지고 저희 아버지와 딜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."</p>  
<p>유진호의 눈에 비장감이 넘쳤다.</p>  
<p>그걸 위해 투자한 돈도 크고,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다.</p>  
<p>'게다가 형님과의 약속도 걸려 있어.'</p>  
<p>진우에게 주기로 한 길드 빌딩.</p>  
<p>그건 아버지, 유명한 회장에게서 길드 마스터 자리를 넘겨받아야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다.</p>  
<p>반면 진우는 홀가분한 표정이었다.</p>  
<p>'3백억짜리 빌딩이야 받으면 좋긴 하지만.'</p>  
<p>어차피 그건 덤이었을 뿐이다.</p>  
<p>진짜 목적은 레벨업.</p>  
<p>C급 게이트를 들락거리는 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이 되었다.</p>  
<p>목표는 이미 이룬 셈이었다.</p>  
<p>레벨업의 결과?</p>  
<p>수십억 이상의 연봉이 보장되어 있었을 A급 헌터 김철이 뒤통수 한 방에 나가떨어져 의식을 잃었다.</p>  
<p>'적어도 녀석보다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단 말이지.'</p>  
<p>실력이 뛰어나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.</p>  
<p>초조해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.</p>  
<p>그런 여유로움이 표정에서부터 묻어나왔다.</p>  
<p>진우가 지난 며칠간을 회상하며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고 있을 때, 유진호가 물었다.</p>  
<p>"형님은 이제 어떻게 지내실 예정이십니까?"</p>  
<p>"나?"</p>  
<p>혹시 물어선 안 될 것을 물은 건가?</p>  
<p>잠깐 흠칫했던 유진호가 진우의 부드러운 표정에 한숨을 놓았다.</p>  
<p>"당분간 연락이 안 될 거야. 어디 가야 할 데가 있어서."</p>  
<p>그 한마디에 유진호의 얼굴이 경직됐다.</p>  
<p>버림받은 강아지 같은 표정을 하고 있던 유진호가 앞에 놓여 있던 술잔을 순식간에 비웠다.</p>  
<p>탁.</p>  
<p>술잔을 테이블 위에 놓은 유진호.</p>  
<p>한 잔을 더 비우고 나서야 어렵게 입을 열 수 있었다.</p>  
<p>"형님, 제가 만약에 번거로우신 거라면 말씀하세요. 앞으로 더 이상 형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."</p>  
<p>'이 녀석...'</p>  
<p>연락이 안 될 거라고 해서 이상한 쪽으로 오해한 모양이었다.</p>  
<p>옆머리를 긁적이던 진우가 대답에 앞서 물었다.</p>  
<p>"진호야."</p>  
<p>"예. 형님."</p>  
<p>"넌 날 어떻게 생각하냐?"</p>  
<p>"저는..."</p>  
<p>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듯 눈을 굴리던 유진호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"저한테 10살 이상 차이 나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, 형님."</p>  
<p>들은 적 있었다.</p>  
<p>유명한의 장남, 유진성.</p>  
<p>"형은 저를 좋아하지 않아서 형과 단둘이 있었던 시간이 아마 형님과 보낸 시간보다도 적을 겁니다. 그에 비하면 형님께선 제 목숨도 구해주셨고, 제 일도 도와주셨고..."</p>  
<p>유진호가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다.</p>  
<p>"제게는 형님이 친형보다 더 형 같습니다."</p>  
<p>아직도 진우가 무섭긴 했다.</p>  
<p>그래도 요 며칠간 진우를 따라다니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.</p>  
<p>무서운 마음보다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컸다.</p>  
<p>"네가 나를 형으로 생각한다면."</p>  
<p>진우가 미소를 띠고 말을 이었다.</p>  
<p>"나도 너를 동생으로 생각하마."</p>  
<p>"혀... 형님."</p>  
<p>코끝이 빨개진 유진호가 울먹거리기 시작했다. 그것뿐이라면 다행인데 자꾸 달라붙으려고 했다.</p>  
<p>"형님! 한번 안아 드려도 되겠습니까?"</p>  
<p>"야, 야! 너 취했어, 인마!"</p>  
<p>"아닙니다, 형님!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맨정신입니다, 형님!"</p>  
<p>"눈이나 제대로 뜨고 말해!"</p>  
<p>"으허어어엉!"</p>  
<p>감격한 건지, 주사가 심한 건지 진우는 테이블에 엎드려 눈물을 뿌리기 시작한 유진호의 어깨를 토닥거렸다.</p>  
<p>곧 잠이 든 유진호가 조용해졌다.</p>  
<p>"하... 가지가지 하는 녀석이네."</p>  
<p>진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혀끝을 찼다.</p>  
<p>유진호.</p>  
<p>여러모로 귀찮은 녀석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다지 밉지는 않았다.</p>  
<p>-다음 소식입니다.</p>  
<p>문득 진우의 시선이 그리로 향했다.</p>  
<p>고기집의 TV에선 한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.</p>  
<p>'벌써 9시가 됐나?'</p>  
<p>그렇게 별생각 없이 TV 화면을 보고 있는데, 갑자기 낯익은 인물이 나왔다.</p>  
<p>'어?'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길드 건물을 빠져나오며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는 인물은 백윤호였다.</p>  
<p>"신입 훈련 과정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는데, 그것이 사실입니까?"</p>  
<p>"상급 헌터가 전부 사망하고 하급 헌터들만 살아 나왔다는 게 맞습니까?"</p>  
<p>"일각에서는 생존자들을 도운 누군가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"</p>  
<p>기자들을 무시하려던 백윤호가 하는 수 없이 대답한다.</p>  
<p>"이미 협회와 조사가 끝난 부분입니다.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조력자 같은 건 없었습니다. 저희 백호 소속 헌터들이 힘을 합쳐 상급 던전을 클리어하고 나왔다. 그 과정에서 다수의 헌터들이 죽거나 다쳤다. 이게 전부입니다."</p>  
<p>기자가 묻는다.</p>  
<p>"그럼 어째서 생존자들과의 인터뷰를 차단하고 계신 겁니까?"</p>  
<p>"그분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.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피곤한 질문을 해야겠습니까? 대답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"</p>  
<p>황급히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백윤호.</p>  
<p>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'저거 내 얘기 아냐?'</p>  
<p>\*\*\*</p>  
<p>얼마 전 미국 동부.</p>  
<p>던전 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.</p>  
<p>"으아아아아악-!"</p>  
<p>제임스가 털썩 주저앉았다.</p>  
<p>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바닥을 기어 도망치다 막다른 벽에 몰렸다는 걸 깨닫고 절망스런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"지저스!"</p>  
<p>게이트의 랭크는 A급.</p>  
<p>A급 게이트를 공략하기 위해 그에 맞는 정예 멤버를 꾸려 들어왔다.</p>  
<p>그런데 그 멤버들이 전멸했다.</p>  
<p>아니, 정확하게 말하면 기절한 것뿐이지만.</p>  
<p>'믿을 수 없어!'</p>  
<p>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제임스가 고개를 수차례 가로저었다.</p>  
<p>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던전에 들어왔을 때, 공격대는 어떤 마수도 발견하지 못했다.</p>  
<p>마수가 한 마리도 없었다.</p>  
<p>-마수가 없는 던전?</p>  
<p>-그런 게 있었어?</p>  
<p>-그럼 게이트 밖에서 측정한 마력은 어디서 나왔던 거야?</p>  
<p>헌터들의 의견이 분분했다.</p>  
<p>그것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는데, 더 놀라운 일은 보스방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보스방에 들어갔더니 마수가 있었던 것이다.</p>  
<p>인간과 똑같이 생긴 마수 하나가.</p>  
<p>그런데 단 하나.</p>  
<p>그 마수 한 마리의 공격에 공격대가 전원 의식을 잃고 말다니.</p>  
<p>이건 강해도 너무 강했다.</p>  
<p>제임스만 겨우겨우 보스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.</p>  
<p>'설마 이 던전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마력이 그 마수 하나에게서 비롯된 것인가?'</p>  
<p>저 멀리 게이트 밖으로 흘러나오는 마력만 쟀는데도 무려 A급을 넘어선다고?</p>  
<p>제임스는 다시 한 번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'있을 수 없는 일이야.'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"하... 이거 참."</p>  
<p>그 마수가 어둠 저편에서 걸어 나왔다.</p>  
<p>마수를 발견한 제임스가 비명을 내질렀다.</p>  
<p>"으, 으아아아악!"</p>  
<p>"어휴, 귀 아파라."</p>  
<p>마수, 아니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동양인 남자는 정수리를 북북 긁었다.</p>  
<p>"아, 아아..."</p>  
<p>제임스는 이제 비명 대신 신음 소리를 내었다.</p>  
<p>제임스 앞에 선 남자가 옆구리에 손을 얹었다.</p>  
<p>"아니, 그러게 왜 다짜고짜 공격하냐고? 나 마수가 아니고 인간이라니까."</p>  
<p>제임스가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언어였다.</p>  
<p>그의 안색이 창백해져 갔다.</p>  
<p>겁먹은 제임스를 고민스런 시선으로 내려다보던 동양인.</p>  
<p>한숨을 푹 내쉬었다.</p>  
<p>"이거 뭐 코쟁이들이랑 말이 통해야..."</p>  
<p>아무튼 또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.</p>  
<p>쭈그려 앉아서 코쟁이와 눈높이를 맞추고, 목소리도 되도록 친절하게 들리게끔 했다.</p>  
<p>"헤이, 헤이."</p>  
<p>떠오르는 몇 개의 영어 단어.</p>  
<p>그러나 짧은 지식으로는 이게 문법에 맞는지조차 알 수 없다.</p>  
<p>"아임 코리언."</p>  
<p>그래서 최대한 또박또박 발음을 내뱉었다.</p>  
<p>"아이 원트 투 고 홈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